

철학사

74 버트런드 러셀 - 논리적 원자론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난 월요일, 일주일 전에 다뤘던 내용을 다시 이어가면서, 이번 주 읽기 과제에 그 과제를 추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추가 과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 시간, 또는 그 다음 시간에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의 사실주의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컬버슨 의 철학사 8권 17장이나 철학 백과사전의 실재론 항목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걸 다 읽고 나면 월요일에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19세기 경험주의, 프랑스의 오귀스트 드 콩트,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독일인인지 오스트리아인인지 모를 에른스트 마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경험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학에서 가설 연역적 방법의 발전입니다. 이는 계몽주의 시대의 객관성이 경험주의에 드러나기 시작한 방식입니다.

계몽주의 기초주의의 문제점은 물론, 충분히 확고한 전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직관적 제1원리든, 존 로크, 토머스 홉스 등의 경험적 일반화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사상가들의 경우, 비록 귀납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험적 일반화를 가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체 학생의 절반만을 표본으로 삼았다면, 전체 학생이 우리가 표본으로 삼은 절반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가설, 즉 가설로서 기능하는 경험적 일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확증을 갖춘 가설조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가설일 뿐이며, 그 가설로부터 추론한 내용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전제에서 출발하여 결론에 이르는 연역적 추론, 데카르트가 시작한 기초주의의 전체 구조가 그러했듯이, 존 로크는 제1원리, 정의 등에서 출발하여 추론하는, 소위 증명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그러한 절차를 따르려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제에서 추론하는 수학적 방법론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가설적 연역법이라는 형태로 과학에도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존 스튜어트 밀이 귀납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원리는 자연의 균일성을 바탕으로 일반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연의 균일성은 가설이며, 모든 경험적 일반화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설적 연역법을 사용하려면 이러한 균일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콩트에 의해 사회학으로, 밀에 의해 정치학 및 윤리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즉, 인간, 인간 행동, 인간 사회, 사회 변화 등을 연구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사회과학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귀스트 콩트가 말한 '과학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고, 20세기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세기는 과학 통일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트릴치 에 대해 한 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 트릴치는 과학 통합 운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가 인과적 설명을 포함한 자연 과학 의 방법론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자연 과학 의 과학적 경험주의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 존 듀이는 20세기에 이러한 과학 통합 운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그가 도구주의를 가장 명확하게 전개한 가치 평가 이론에 관한 저서는 '통일 과학 국제 백과사전'이라는 일련의 논문집에 실렸습니다.

이해했어? 국제통일과학백과사전. 단행본 시리즈지. 그러니까 인문과학이 사라지면서 콩트, 밀, 공리주의 같은 것들이 생겨난 거야 .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데이비드 힐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어떤 형태의 경험주의든 형이상학과의 충돌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세기 경험주의가 현상론적(이 둘은 구별 해야 합니다)이 아닌 현상주의적 입장을 발전시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콩트의 저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는 모든 과학의 발전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종교적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형이상학적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과학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험 과학은 형이상학적 사변의 필요성을 넘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밀의 철학에서도 물질은 현상론적 관점에서 감각의 추가적인 가능성으로 간단히 기술되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정신은 성찰 의 영원한 가능성입니다 .

보시다시피, 순전히 경험적인 정의, 현상주의 적인 정의입니다. 마음 그 자체나 물질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죠 . 그러니까 현상주의적이고 반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마크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중 처음 두 가지에 더 중점을 둡니다 .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지난주에 가르너가 과제로 내준 콩트, 밀, 마크의 글들을 꼭 읽어보세요.

꽤 쉬울 거예요 . 마크의 책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콩트와 밀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하죠.

그러니 잘 숙지해 두세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용이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학기 중에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 읽는 법을 익혔으니까요.

처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경험주의의 세 가지 특징이 버트런드 러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버트런드 러셀의 사상, 특히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저작, 논리 실증주의, 그리고 에이어의 논리 실증주의 이후의 특정 유형의 분석 철학에서 이러한 사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에이어의 저작을 주요 자료로 읽게 될 것입니다. 에이어의 저작을 읽을 때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실증주의 운동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 이게 바로 가을에 B 쿼드에서 열릴 세미나 주제죠. 제목이 뭐였더라? 최근 분석철학?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현대 분석철학이요? 네, 러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에서 다루는 슈툼프, 카르납, 콰인 같은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20세기 분석철학 발전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비트겐슈타인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이들의 사상은 실증주의 운동을 형성하고, 1950년대 중반까지 과학철학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20세기 서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자연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겠죠? 자연주의 철학은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연구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 이것이 바로 자연주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전제들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걸 이해하려면 19세기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버트런드 러셀 같은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에서 불과 20년 전, 어쩌면 그보다 더 전에 세상을 떠난 버트런드 러셀로 넘어가는 게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 존 스튜어트 밀이 러셀의 대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종교적 신념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부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종교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형식적인 관계는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적어도 조금은 겹쳤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 . .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의 논리적 원자론에 있어 지속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슈툼프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고, 이는 옳은 지적입니다.

그는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의 초기 관심사는 수학과 논리였으며, 수학자로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재학 시절 화이트헤드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으며,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를 공동 집필했다. 애칭으로 PM이라고 불렸다.

영국에서 'PM'은 세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 총리, 그리고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 알겠습니다.

러셀에게 있어서 『총독』은 한국에서 그의 주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계기였다. 이 책에서 그는 화이트헤드와 함께 수학이 본질적으로 논리와 동일하며, 둘 다 형식 논리 체계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형식 논리 체계란 간단히 말해 연역적 체계를 의미한다.

연역적 체계의 형태를 가진 시스템입니다. 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처음 공리에서 정리를 연역하고, 여러 정리의 결론에서 또 다른 정리를 연역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학, 산술, 기하학 모두 연역적 체계로 형식화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기호 체계입니다.

대수적 기호를 사용하여 다른 주제를 형식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호 논리학이 최초의 기호 논리학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최초 시도였을 수도 있지만, 기호 논리학이 영어권 철학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 기호 논리학의 등장 덕분입니다.

그는 또한 수학 전공자이거나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수학 철학 입문서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수학의 기초. 그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 주제에 관한 저서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처우했죠.

년쯤 출판된 대중적인 저서인 《철학의 문제들》을 시작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관한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정신과 물질을 다루는 작품들이었습니다. 40년대 후반, 아마 47년이나 48년쯤이었을 텐데, 그의 마지막 체계적인 인식론 저서인 《인간 지식의 범위와 한계》가 나왔습니다. 이 책과 그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

하지만 그의 인식론 연구 전반 에 걸쳐 흐르는 것은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에서 발전시킨 형식 체계, 즉 연역적 체계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짧은 에세이인 「철학의 본질로서의 논리」에서도 이러한 이상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것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철학의 본질로서의 논리 말이죠. 그는 '논리적 원자론'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에세이에서도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방법론과 철학에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 원자론이란 무엇일까요? 논리적 원자론은 우리의 모든 생각, 믿음, 지식,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우리의 모든 담론을 원자적 명제로 분석할 수 있고 또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명제는 원자 명제로 구성될 수 있고 또 그렇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명제는 주어와 술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 명제는 가장 작은 품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원자 명제 외에도 용어가 있지만, 용어는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부정할 때 사용되는 의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명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들이 있고, 원자 명제들이 있습니다. 원자 명제들이 결합되어 분자 명제를 형성합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원자 명제는 말 그대로 사고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원자 명제는 원자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분자 명제는 분자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용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 특정한... 아니, 다시 생각해 보니 용어는 일반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파란색, 사각형... 이것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파란색, 사각형, 갈색. 일반적인 속성들을 살펴봅시다.

혹은 단순히 개인의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조, 빌. 이것들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속성이거나 고유명사로서 개체를 지칭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담론을 원자적 사실에 대응하는 원자적 명제로 분석하고, 이러한 원자적 명제들을 형식적인 연역 체계로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본 명제들이 특정한 전제들로부터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전제들일까? 바로 경험적 일반화들이다. 여기에는 최대한 일반적인 가설들도 포함된다.

가설적 연역법. 즉,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은 특정 일반화, 특정 가설 등으로부터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역 체계의 기초주의적 모델은 자연과학을 넘어 윤리학, 그 밖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에서 분석된 수학적 방법은 오늘날 모든 과학적 사고, 모든 논리적 이해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설명은 전제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하는 연역적 추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설 연역법.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원자적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자적 사실이란 현실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라고 말합니다.

네, 이걸 자연에 대한 원자론적 관점입니다. 이러한 원자론적 관점은 에른스트 마흐의 영향을 받았죠. 그의 감각 이론, 기억하시죠?

감각. 감각을 경험의 원자적 구성 요소로 보는 이론. 따라서 과학 이론은 이러한 원자적 데이터, 원자적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방식일 뿐이다.

감각 데이터. 러셀이 말하는 바는 원자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이는 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경험은 연결된 상태로 오는 게 아니야. 기억나? 경험은 원자 단위로 오는 거지. 뻘, 뻘, 뻘.

관계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러셀은 다원주의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모든 관계가 기계론적인 외적 인과관계라고 가정하는 그는, 출발점에서부터 헤겔과 같은 일원론적 형이상학이나 내재적인 유기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유기체적 모델보다는 기계론적 모델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의 초기 저서 중 하나는 『신비주의와 논리』였는데,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논리적 방법론을 주장하며 베르그송이나 브래들리 같은 사람들의 방법론을 반박했죠.

헤겔 철학에서 쓴 내용입니다. 베르그송은 세계관이 발생하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직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리고 브래들리는 광범위한 관점에서 존재에 대한 즉각적인 자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알 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하는 정교한 작업에 구조를 부여하는 겁니다. 러셀은 그걸 신비주의라고 부르며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는 원자적 사실들 사이에 내재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이 전체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관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내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면, 직관은 그 관계에 수반되는 의식일 뿐이라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형이상학 적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그는 현실의 기본 구성 요소인 원자적 사실들을 규명하려는 논리적 원자론을 제시한다.

그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인과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를 '대부'라고 불러야 할까요? 요즘 그런 표현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요? 존 스튜어트 밀의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러셀이 인식론에 관한 저작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을 의문시할 때 현상주의자가 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경험이라는 원자적 데이터에 외부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죠. 결국 남는 것은 현상뿐입니다. 제게 있어 세상이란 그런 것이죠.

그는 경력의 특정 단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현상론자라기보다는 실재론자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실재론자란 실재하는 물질적 대상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속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그러한 시점에서 과학을 실재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의 초기 저작에서 그가 사실주의자였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야겠습니다. 즉, 그는 의식이 의도성을 지닌다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식은 어떤 대상을 의도하고, 가리키고, 의미하는 정신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의도성, 즉 정신적 행위가 나에게 대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러셀은 처음에는 실재론자였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 행위를 거부하게 되었고,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 또한 거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현상주의자가 되었다. 문제는 그러한 정신적 행위가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현상학적 설명은 타당한가? 그렇다면 원자적 사실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구절 자체가 철학적인 가정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 원자 명제는 언어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언어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자적 명제를 그러한 구성 요소로 분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죠. 그의 예시 중 하나는 현재 프랑스 국왕인데, 그는 대머리입니다.

솔직히 왜 항상 그 예를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현 국왕은 대머리입니다. 이것만 봐도 아주 간단한 사실처럼 들리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자 수준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호 형태로 표현하려고 할 때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호 논리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현재 프랑스 국왕이자 대머리인 실존 인물 X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즉, X라는 인물이 존재하며, 그 인물은 프랑스 국왕이고 대머리입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의 기본 사실이 있고, 여기 또 다른 기본 사실이 있습니다.

분자적 명제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대머리인 X가 현재 프랑스 국왕인 X와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신원 오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며, 기호 논리는 매우 편리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원자적 사실과 원자적 명제라는 용어 외에도 원자적 명제가 원자적 사실에 대응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따라서 여기에 진리에 대한 대응 이론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매우 신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그 명제들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속성들 사이에 일대일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즉, 구성 요소들의 항들과 그 요소들의 속성들 사이에 매우 정확한 일대일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러한 논리적 원자론을 바탕으로 연역적 과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철학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형이상학에서 다원주의는 일원론과 구별됩니다.

현상주의는 실재론과 구별됩니다. 뭐, 그는 두 사상 사이를 약간 오가다가 결국에는 실재론자 편에 서게 되지만, 어쨌든 그는 현상주의 진영에 속합니다. 실재론 게임. 그는 사변적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분석철학을 선호한다.

논리적 분석. 그의 원자적 사실 들은 그 자체로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그러한 구분 과 관련하여 중립적이다.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립적 일원론자입니다. 질적 일원론자로서, 사실의 속성은 하나뿐이며, 그 속성은 심신 구분 과 무관 하게 중립적입니다.

분자 수준의 명제와 복잡한 개념들이 정신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구성물이죠. 우리는 원자 수준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사물을 구성합니다.

관계는 이미 형성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 수많은 기본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몸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대상 , 즉 물질적인 대상이라는 개념은 정신적 구성물입니다. 논리적 구성물이죠. 외적으로 실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 그것은 이상적인 실체입니다 .

그것은 하나의 관념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신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지식 구성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가 기초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

여러 차례 구분을 짓는데 , 이는 그의 저서 전반에 걸쳐 유지된다. 그는 직접 경험을 통한 지식과 서술을 통한 지식을 구분한다.

이제, 직접 경험을 통한 지식은 데이터에 기반한 지식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지식이죠. 서술을 통한 지식은 프랑스 국왕과 같은 물질적인 대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묘사하는 정신적 구성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물은 분자적 명제, 복잡한 개념의 언어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특정한 속성들 입니다 .

바로 이곳에서 직접 경험을 통한 지식이 작용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서술을 통한 지식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실재론자인지 현상론자인지에 따라, 근본적인 사실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얻거나 서술을 통해 얻게 될 것입니다.

설명이 연역적 체계에 기반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 그의 저서 『인간 지식』을 예로 들어보죠.

인간 지식, 그 범위와 한계. 1948년 출판. 인간 지식, 그 범위와 한계.

그는 과학적 지식의 본질적 범위를 논리적 형태로 정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 의 모든 지식이 과학적 방법, 즉 본질적으로 가설 연역적 절차를 통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적 검증 , 즉 검증 가능한 표본을 통해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려 한다면, 연역을 이루기에 충분한 전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 지식은 단순히 직접적인 검증이 가능한 가설들 이상의 추가적인 가설들을 포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그는 순수 경험주의가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즉, 그가 과학적 공리라고 부르는 추가적인 전제들을 도입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 현대 과학의 전제들입니다. 이러한 가설적 연역적 설명을 과학적 방식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들이죠 .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전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는 귀납의 원리, 자연의 균일성, 귀납의 원리 같은 것들입니다.

인과관계. 인과적 영향의 선들이 존재합니다. 인과관계.

물질적 대상의 준영속성. 좋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전의 형이상학 체계들이 믿을 만한 형이상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것들을 전제로 도입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흄이 삶 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믿음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러셀은 과학 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학적 명제라는 지위로 격상시킨 셈입니다 . 그리고 그는 그 명제를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이 정당화되고 설명될 수 있으며, 논리적 분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러셀에 대한 개요였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스티프의 관련 글은 읽어보셨나요? 아, 그래서인지 다들 꼼짝 않고 앉아 계시네요. 네, 메리.

네, 그가 독립적 일원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질적 이원론을 제시했습니다. 현실에는 정신과 육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네. 현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입니다. 데카르트 이후로 마음과 몸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좋습니다. 정신적 속성은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리적 속성은 확장성을 수반합니다. 러셀이 말하는 것은 속성에는 두 종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에도 두 종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 대해 독립적인 속성은 오직 한 종류뿐입니다 . 즉,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 시공간적 사건은 우리가 정신적 구성물이라고 부르는 '정신적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 시공간적 사건은 우리가 정신적 구성물이라고 부르는 '신체'를 만들어냅니다.

러셀만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의식의 서치라이트 이론'이라고 명명하여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련의 물리적 사건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그 사건들이 탐조등에 의해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예를 들어 탐조등으로 비행기를 비추는 순간,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의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자 정신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련의 사건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것은 단지 정신적 사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각, 환상, 백일몽,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것은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중립적 일원론이죠.

그가 형이상학적 다원주의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가 형이상학적 다원주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세요. 질적인 측면, 사물의 본질, 즉 질적인 면에서는 그는 일원론자입니다. 사물의 종류는 하나뿐이죠.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는 다원론자입니다.

적인 사실들이 아주 아주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크레티우스, 데모크리토스 같은 원자론자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원론자들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한 종류라는 의미에서 일원론자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씨앗을 제시한 아낙사고라스와는 대조적 입니다. 따라서 아낙사고라스는 양적, 질적 두 가지 의미에서 다원론자입니다.

러셀은 양적인 의미에서만 다원주의자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일원론자죠. 그리고 제 생각에 그의 일원론은 결국 자연주의로 귀결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19세기 기준, 즉 가설 연역법이 보편화되어 현상론으로 이어진 과정을 좀 더 구체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러셀의 저서에서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살펴보죠.